

## 일본의 금형산업 재편 움직임

- 히타치 등 일본기업이 국내 금형거점을 대폭 축소하고, 생산방식도 재검토하는 등 모노즈쿠리를 지탱해 온 일본 금형산업이 재편에 돌입
- 그러나 기술이나 생산노하우의 유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어, 일본 국내에 어떤 기능을 남길 것인지가 일본기업들의 공통된 과제로 부상

### □ 생산 집약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

- 일본의 모노즈쿠리를 지탱해 온 금형산업이 생산재편에 돌입
  - 경산성 공업통계에 따르면 금형을 제조하는 일본 국내 사업소 수는 2010년 약 9,200개로, 리먼쇼크 전인 2007년보다 105개 감소
  - 생산액은 1조엔 정도로 정점이었던 2006년 이후 4년 연속 감소
  - 이 같은 추세는 2011년 이후에도 엔고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해 생산거점별로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고 있음
- 금형은 양산품을 생산하는데 빼놓을 수 없고, 중소기업이 많아 업계의 90%를 20명 이하의 사업소가 차지하고 있음
  - 전기나 자동차부품 등 메이커가 내제하는 사례가 많으나, 생산거점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생산성 향상에 문제를 안고 있음
- 이 때문에 금형도 해외생산·조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단순한 금형인 경우, 일본의 절반 비용으로 생산하는 중국기업들이 있음

- 최근 해외기업들이 고성능 공작기계를 도입하고 있어, 일본기업들이 일감을 뺏기는 사례가 늘고 있음
- 그러나 금형은 신기술이나 상품 개발력이 경쟁력의 원천임
  - 히타치제작소에는 금형을 아시아기업에게 외주하고 있으나, 설계 여하에 따라서 최종제품의 비용이나 품질이 크게 좌우되어 거점의 집약화를 통하여 국내에 잔류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음
  -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기업 간 제휴나 재편으로 규모의 확대를 꾀하는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
#### □ 히타치제작소 금형거점 수를 절반으로 대폭 축소

- 히타치제작소는 생산자재와 주요 부품의 일본 국내생산재편에 착수
  - 20여개의 생산거점을 2014년 중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으로 28개 공장에 분산되어 있는 프린트기판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
  - 히타치는 모노즈쿠리의 기반기술을 일본 국내에 남겨 둘 방침으로 대폭적인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임

#### □ 히타치의 프린트기판 생산라인

- 히타치는 금형을 가전제품용에서 자동차부품, 중전기용부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내제하고 있어, 전국에 거점이 분산되어 있음
  - 금형은 제품이나 소재, 제법에 의한 차이가 커서 생산거점을 집약화하기가 어려움

- 현재 20개소에서 10개소 이하로 줄일 방침이며, 거점집약화에 따른 투자액과 어느 거점에 집약시킬 것인가에 관한 상세한 계획은 앞으로 추진
- 프린트기판은 히타치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, 기후현에 있는 자회사공장을 주력 거점으로 설정, 2014년 3월까지 가전, 자동차부품, 의료기기용 기판을 집약화 할 계획임
- 그 외에 제품별로 가나가와현, 후쿠시마현, 이바라기현에 집약시킬 예정
- 거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, 제품의 공장과 기판의 라인이 떨어져 있어도 도면 등의 정보를 원활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
- 제품의 표준화나 집중구매도 추진, 생산비용의 30%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라인통합 후 2014년에는 프린트기판만으로 110억엔의 비용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음.

#### □ 생산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일부 기능은 재편 후에도 유지

- 금형, 프린트기판과 함께 생산량이나 고용은 거점재편 후에도 유지할 전망
- 히타치는 공장이나 그룹 회사별 독립성이 강하여 부품도 각각 자체생산 하는 경향이 강함
- 금년 4월부터 시작한 비용구조의 개혁에서는 연간 9조 엔의 총비용을 2015년까지 5% 압축한다는 목표로 이제까지의 과도한 자체 생산방식을 재검토할 방침임

## □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해외이전 범위 설정이 과제

- 전사 차원에서는 해외생산이나 생산위탁을 늘릴 방침이나, 거의 모든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이나 프린트기판은 기술유지 차원에서 일본 국내에 거점을 남겨놓는다는 것임
- 모노즈쿠리 백서에 의하면, 2011년도 일본 국내 전기·전자 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49%로 산업별로는 가장 높음
  - 최근에는 전력수급의 제약과 엔고로 인하여 첨단제품의 생산까지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
  - 해외생산은 기술과 생산노하우의 유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어, 일본 국내에 어떤 기능을 남길 것인가가 일본기업들의 공통된 과제가 되고 있음

### 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8.26)